광주 남구 전통시장 조례 개정 전면 보류

시장 상인·지역사회 반발 커지자 추진 중단

최영호 청장 "더 심도있게 논의 결정하겠다"

광주시 남구가 9일 지역 전통상권 보호를 위해 제정했던 조례를 고치면서까지 추진했던 신청사 내 대규모 의류매장 및 가구 판매장 입점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영세한 지역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채 섣불리 행정을 추진하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미숙한 행정으로 주민 갈등만 야기시켰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10일 남구청 7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운 광장 상권 활성화와 청사 임대를 위해 추진해온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안'의 의회 상정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재래시장 상인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있었고 주민 여론이 양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면서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례 개정에 대한 여론 조사(전화) 결과, 66%의 주민들이 찬성하는가 하면, 공청회에서도 찬성 측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재래시장 상인 등의 반대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게 최 청장 설명이다. 이로써 지난 10월 남구가 추진했던 신청사 내 대규모 의류매장 입점은 지역 상인·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혀 2개월 만에 보류됐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 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대형 의류매장 입점에 따른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 구의회 측 반대 입장도 적지 않아 조례안 통과 여부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는 그러나 "임대가 지연돼 22년 임대기간 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투입한 금액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면 임대 연장이 최장 30년까지 가능해 남구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면서 청사 임대 부진으로 인한 남구의 재정난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현 조례상으로는 청사 내 대규모 점포를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 "반대 의견이 있는 분들과 어떻게 협의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많게는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사 내 대규모 의류 매장 입점을 철회하는 게 아닌, 보류 뒤 재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해치지 않는 업종을 어떻게 선택할지 지역사회와 논의하고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남구의 이번 결정으로 대형 의류매장 입점은 당분간 미뤄졌지만 어설픈 행정으로 주민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의류·가구 매장은 지역 중소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자의적 논리와 신청사 이익 창출을 내세워 자신들이 제정한 전통상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고치겠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남구의 조례 개정 보류 계획과 관련, 시장 상인들은 "상인회,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보류가 아닌 철회"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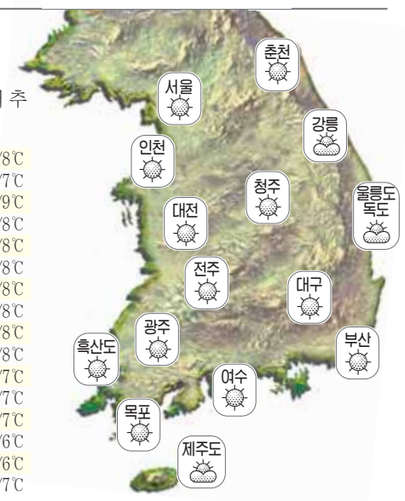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0분 해짐 17시 21분 | 달뜸 12시 49분 달짐 00시 33분

추위 시작

대부분 맑은 가운데 밤부터 추워지겠다.

광 주	맑음	3/8℃
목 포	맑음	2/7℃
여 수	맑음	5/9℃
나 주	맑음	2/8℃
완 도	맑음	4/8℃
구 례	맑음	2/8℃
강 진	맑음	3/8℃
해 남	맑음	3/8℃
장 흥	맑음	3/8℃
순 천	맑음	2/8℃
영 광	맑음	2/7℃
진 도	맑음	4/7℃
전 주	맑음	1/7℃
군 산	맑음	1/6℃
남 원	맑음	-1/6℃
흑산도	맑음	5/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먼바다	서~북서	3.0~5.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먼바다	서~북서	2.0~4.0m

감기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낮음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5m
먼바다	서~북서	1.5~3.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서~북서	2.0~3.0m

	밀물	썰물
목포	07:47 20:18	00:33 12:48
여수	02:39 15:11	08:28 21:3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날 씨						
최저/최고	0/5	-2/6	-2/4	-3/5	-2/6	-1/7

혈액 한 방울이면 각종 암진단 가능

서울대병원 연구팀 개발

저렴한 비용을 들여 혈액 한 방울로 다양한 암을 진단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김영수 교수와 이철수 한국과학기술원(KIST) 박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팀은 질량분석기의 다중반응검지법(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을 통해 극미량의 유방암 시료에서 300개 이상 단백질 표지자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전까지 종양표지자 검사는 종양표지자마다 새로운 항체 분석법을 개발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같은 검사를 해도 단백질 분석 편차가 발생해 표준화된 동일 값을 얻기 어려웠다.

공동 연구팀이 이번에 개발한 다중반응검지법을 이용하면 1㎍(1/1000 mg) 시료에서 한 번 검사로 100~300여 개의 단백질 표지자를 한 번에 정량할 수 있다. 또 어떤 단백질이 암 표지자인지 밝혀지면 한 번의 피검사로 수십 가지의 암을 밝혀낼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 청소련수련원 생활관 개관 광주시 청소련수련원 생활관 개관식이 9일 오후 서구 화정동 수련원 내에서 열렸다. 강운태 광주시장, 조호권 광주시의회의장 등 내외빈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주중 눈·비…기온 영하권 '뚝'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진도 12.5㎜, 광주 8㎜ 무안 7.0㎜ 등 광주·전남지역 곳곳에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오는 11일에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10일부터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12일 광주 최저기온이 영하 2도, 목포는 영하 1도로 떨어지는 등 주말인 15일까지 춥겠다.

이번 추위는 다음주 초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도로명 주소' 미끼 보이스피싱 극성

은행연합회, 내년 시행 앞두고 금융정보 요구 주의 당부

전국은행연합회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를 미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빈발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연합회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은행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도로명 주소 전환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은행은 도로명 주소 전환을 위해 어떤 이유로도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은행을 사칭한 사기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한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 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진화 산업통제시스템으로 확산

내년에 안드로이드 기반 악성코드가 더욱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안 솔루션 기업 포티넷코리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4년 5대 보안 위협'을 9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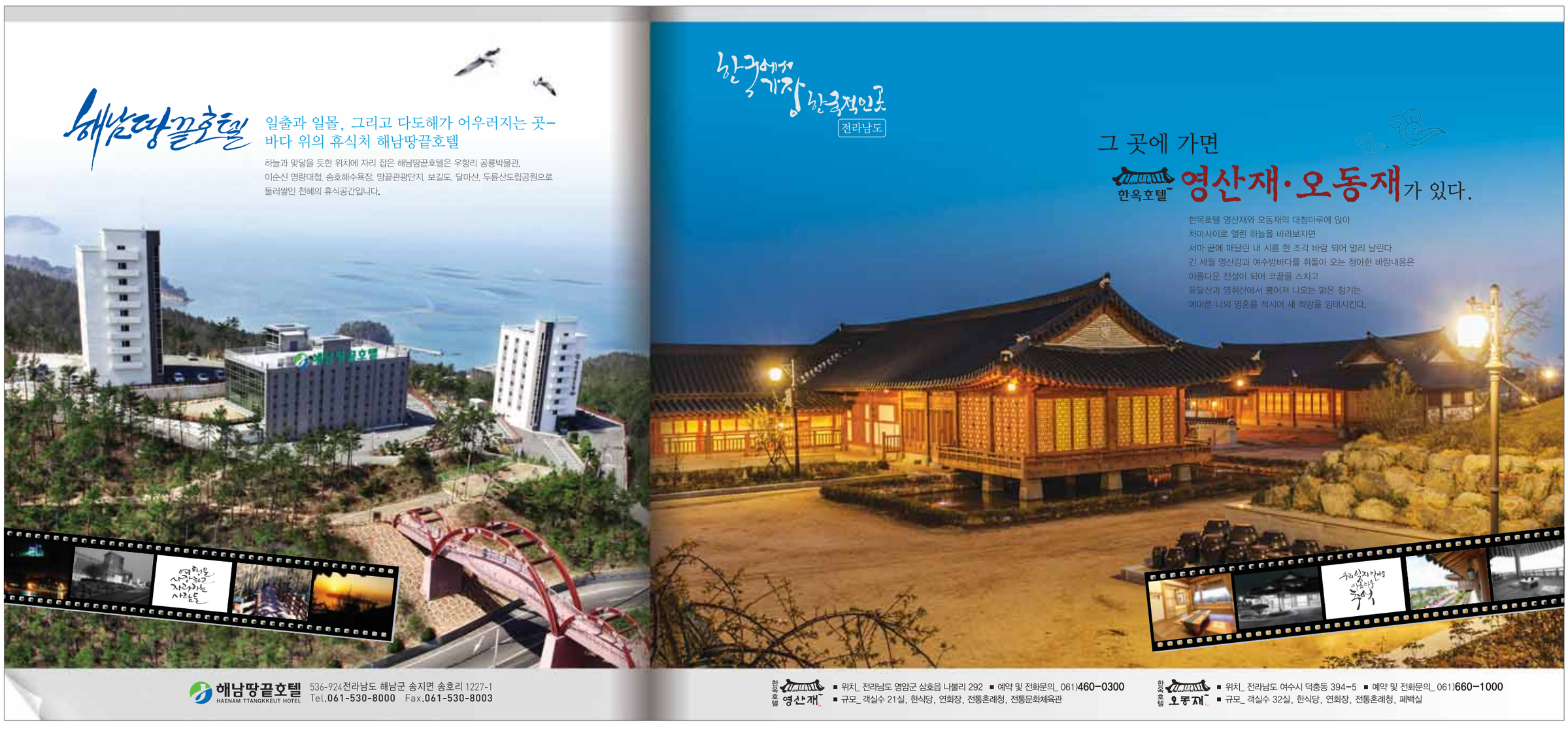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스마트폰 이외에 산업통제시스템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안드로이드 악성코드도 더욱 진화할 것으로 포티넷은 예상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기준치 이하라도 장시간 노출땐 수명 단축"

영국 의학전문지 논문

최근 광주·전남에 기승을 부렸던 중국 발 미세먼지는 기준치 이하라도 오랜 시간 노출되면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의 의학전문지 '랜싯(Lancet)'에 9일(현지시간) 실린 논문에 따르면 롭 비렌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박사 연구팀이 서유럽인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5㎍/㎥ 증가할 때마다 일찍 죽을 확률이 7%씩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유럽연합이 설정한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더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초미세먼지는 지름 2.5㎛ 이하의 작은 입자로, 폐 깊숙한 곳에 박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혈류에 넘어들어가기도 한다.

유럽연합은 현재 초미세먼지의 최대 노출 허용 기준을 25㎛/㎥로 설정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연합뉴스